

LG전선, 수송용 특수전선사업 강화

수송용 특수전선이 LG전선의 효자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LG전선(대표 한동규)은 선박용, 철도 차량용, 자동차용 전선 등 수송용 특수전선분야의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30% 늘어난 총 1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 건조·수주 규모가 올해 최대치를 기록하는 한편 자동차용 전선의 해외 판매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LG전선은 올해 들어 2월까지 수송용 특수전선분야에서 총 12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난 것이다.

LG전선의 한 관계자는 “수송용 차량의 난연화·무독성화 경향에 따른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기대 이상의 실적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LG전선은 특히 선박용 전선과 관련, 국내 업계가 이미 세계적 역량을 가진 만큼 안정적인 공급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일본 유럽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 판매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금년 매출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동차용 전선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시장점유율을 45%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판매액도 거래선 다각화로 작년의 2배인 1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LG전선은 2005년 신제품 매출로만 450억원의 실적을 올린다는 목표아래 별도의 연구팀을 구성,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무독성 자동차용 전선의 생산능력을 2배로 늘리는 등 세계화 품목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해도옵틱스, MOF 성능시험 통과

광(光)전력기기 전문생산업체인 해도옵틱스(대표 윤태현)는 최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광(光)전자식 25.8kV 몰드 가스절연 MOF(25.8kV 3상 SF6 GAS MOF)가 한국전기연구원이 실시한 개발시험에 통과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제품은 압력계, 압력상승 보호장치, KL단자 분리구조(붓싱)로 설계돼 폭발위험이 적으며 단자함이 투명덮개로 제작돼 결선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난연성(불연성)가스인 SF6 가스를 사용해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하며, 기존 유입식 MOF보다 절연성이 우수하다.

또한 고신뢰성·고정밀 광소자 칩을 이용한 광 CT를 내장했으며, 외함은 유기물 복합 소재인 에폭시로 몰드화해 기존 제품보다 무게와 크기가 줄어든 '초경량 MOF' 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계양전기, 내년 매출 목표 1619억

전동공구와 모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계양전기(대표 이상익)는 최근 기업설명회를 하고 내년도에 1619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377억원에 비해 17% 늘어난 수치다.

품목별로는 주력제품인 전동공구부문을 지난해 636억원에 비해 4.6% 증가한 665억원으로 책정했으며, 모터부문은 125억원, 엔진부문은 129억원의 매출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올해 전동공구와 모터의 판매단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기순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17.2% 줄어든 9억2000만원으로 예상했다.

국내공장 및 중국공장에 대한 투자도 늘려 총 16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계양전기는 특히 올해를 중국공장 흑자의 원년으로 삼았다.

지난해 10만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중국공장에서 올해는 8만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출도 지난해 300만 달러에서 올해 64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계양전기는 지난해 1377억원의 매출에 영업이익 152억원, 경상이익 148억원, 당기순이익 112억원을 달성했다.

LG전선, 15개 세계화 제품 선정

LG전선(대표 한동규)은 최근 주춤한 경영실적의 성장 돌파구로 세계화 제품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LG전선은 이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차별적인 역량을 갖추어 2~3년 내 연평균 20% 이상 성장이 가능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초고압 전력케이블 접속재, 광복합 가공지선(OPGW) 선박용 전선 등 15개 품목을 세계화 제품으로 선정하고 생산능력·기술역량 확보를 위해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 및 현지화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LG전선이 현재 매출 2조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어 3년 매출의 20% 이상과 수익의 3분의 1 이상을 세계화 제품으로 끌고 가겠다는 '제2의 도약' 의지로 분석된다.

LG전선은 대표적으로 전력사업의 초고압 접속재분야 세계 일류 전문업체를 목표로 우선 30억원을 조기 투자해 올해 35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3년 내 7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OPGW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설비 능력을 지금보다 2배 증대, 매출을 2005년 500억원으로 잡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현지화 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또 세계화 제품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인정한 선박용 전선 등 특수전선은 현재 15%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3년 내 25%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전선은 세계화 품목으로 선정된 제품의 금년도 매출을 총 1700억원 규모로 잡고 3년 내에 5000억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 회사가 올해 총 7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투자비 중 상당부분이 세계화 제품 육성에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LG전선 한 관계자는 현재 10개 사업부에서 선정한 세계화 품목의 육성을 위해 최고경영자가 주도해 각 사업부별로 별도의 팀을 구성, 실무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평일산업, '전기관통구설비' 한수원 독점공급

평일산업(주)(대표 김봉주)이 원자력 발전소 부품인 '전기관통구설비(EPA)'를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독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평일산업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전기관통구설비를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개발한 데 이어 최근 한수원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평일산업은 2005년 2월까지 전기관통구설비를 한수원에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로 기록됐다.

평일산업은 특히 한수원이 2010년경 완공예정인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이 제품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 수 십억원대의 추가 매출달성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기관통구설비란 발전소 돔 내부의 각종 전기설비를 제어·계측하기 위한 전원 공급용 통로로 원자로 내·외부 케이블을 서로 연결하는 접속장치다.

이 설비는 그동안 해외에서 모두 수입해 왔기 때문에 외국 업체의 무리한 가격인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왔으며, 기기 이상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복구할 수 없는 등 국산화가 시급히 요구돼 왔다.

이와 관련, 평일산업은 2년 여의 연구 끝에 총 20억원을 투자, 15kV 고압전력용 등 4가지 방식의 전기관통구설비를 지난해 10월 개발해 내는 데 성공했다.

이 제품에는 새로 개발된 16종류의 케이블을 탑재했으며, 최대 73개 철심으로 이뤄진 모듈을 23개 까지 장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또 가스누설률을 초당 100만분의 1cc 이하로 낮추는 등 안전성을 크게 강화했다.

부상을 고무재질의 폴리머로 만들어 내진 성능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장점이다.

現代重, 美에 신기술 연구소 설립

- ▶ 전력 변화분야 국내 최초의 해외 연구소
- ▶ 자동차용 전장품, 分散發電분야 본격 참여
- ▶ 18일(화) 현대중서 美 에노바사와 계약 서명

現代重工業(대표: 민계식·최기선)이 미국에 디지털 전력 변환 연구소를 설립한다.

現代重工業은 지난 3월 18일(화) 오후 5시 30분, 회사 내 영빈관에서 민계식 사장(CTO)과 美 에노바사(Enova Systems, Inc.) 칼 페리(Carl D. Perry) 사장 등 양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전력 변환 및 제어부문의 신기술개발 연구법인(가칭 ATC : Advanced Technology Center) 설립을 위한 합작 계약서에 서명했다.

現代重工業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렌스 시에 세워지게 될 이 연구소가 신규사업 개척 및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 확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세계 최첨단 기술 분야인 전기 자동차용 전장품과 분산발전시스템을 중점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現代重,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 독자 홈페이지 오픈

국내 중전기 분야 선두 주자인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대표 : 김영남)는 인터넷 마케팅 강화를 위해 중공업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사업부 독자 홈페이지를(www.hyundai-elec.com) 3월 오픈했다.

이번에 제작된 홈페이지는 새로운 디자인과 색상으로 사업본부의 첨단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풍부하고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와 함께 고객의 사용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보성과위텍, 영서변전소서 시운전 돌입

‘23kV용 건식형 분로리액터’

보성과위텍(대표 임도수)은 최근 한전의 지원을 받아 기존 제품의 단점을 대폭 개선한 23kV용 건식형 분로리액터를 개발했다.

보성과위텍은 한전송변전사업본부와 공동으로 23kV용 건식형 분로리액터를 개발, 설계통 적용모델인 45MVar급 2bank를 남서울전력관리처 영서변전소에 설치하고 시운전에 들어갔다.

23kV용 건식형 분로리액터는 기존 345kV주변압기 3차측에 설치운전 중인 유압식 분로리액터와 달리 철심을 사용하지 않는 공심형 구조로서 코일 중간에 냉각용 덕트를 채용하여 냉각효과가 우수하고 소음도 50db 미만으로 대폭 낮추었다.

특히 이 설비는 H종 건식절연의상분리형 구조로 설계돼 과도한 진동에 의한 접속부위의 이완과 내부절연 파괴에 의해 발생하기 쉬운 단락사고나 화재 발생의 위험이 없어 앞으로 노후설계를 대체하거나 새로 건설되는 초고압신규변전소 설계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체적이 줄어들어 기존설비의 철거부지 대에 대체설치가 가능하며, 최소단위 용량이 100MVar인 345kV급 분로리액터와 같은 용량으로 비교할 때 설치비가 345kV급 GIS 및 GIB 등 초고압 1차설비와 고가의 절연비용 등이 배제돼 약 1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어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도 기존설비에 비해 5분의 1로 축소되어 변전소부지 이용 효율을 대폭 높일 수 있으며 유지관리비가 전혀 소요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성 측은 이 제품에 대해 “당초 송변전 사업본부에서 이 제품을 공동 연구개발 과제로 채택할 때 기존 유압형 분로리액터를 단순 대체한다는 개념하에 30MVar용량으로 연구를 마무리했으나 본체의 설계체적 제한으로 인한 Part Core의 적용 및 절연 Pedestal의 보강 등 구조상의 문제가 대두되

어 설계용 적용상 문제가 없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기업인 보성파워텍(주)과 2년간에 걸친 추가연구 및 설계변경 검토단계를 거침으로써 설비용량도 50% 늘어난 45MVar의 완전한 공심형 상업성 분로리액터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성파워텍은 장문명 사장은 "이 설비를 개발함으로써 소음이 대폭줄어 이로 인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가도 3분의 1로 줄여 경제성 면에서도 탁월하다"고 밝히고 "이 같은 설비의 장점을 고려할 때 시사용 이후 설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넥상스, 2004년까지 알스툼에 케이블 공급

자사 제품 우수성 입증, R&D투자 서비스 강화

다국적 케이블업체인 넥상스(대표 : 송윤용)가 해양구조물과 중전기 제품 전문 기업인 알스툼의 에너지 및 통신 케이블 우선공급자가 됐다.

넥상스는 자사가 생산하는 케이블을 2004년까지 2년간 알스툼의 운송, 해양구조물, 전기생산 및 해전 분야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2400만 유로에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본 립 넥상스 전력선부문 사장은 "알스툼의 우선 공급자로 지정된 것은 넥상스 제품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힘써 질 좋은 케이블을 만들고 서비스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넥상스는 10년 전부터 알스툼 해양의 샘 나제르 조선소 해양 구조물에 케이블을 공급해 왔다.

LG전선, 본사 이전

LG전선(주)은 지난 3월 27일부로 아래와 같이 본사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삼성동 ASEM타워로 이전하였다.

- 주 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ASEM타워 19~20층(우편번호 135-798)
- 전 화 : 02-2189-9114
- 팩 스 : 02-2189-9119

피엔씨테크(주), 공장 이전

피엔씨테크(대표: 안복신)가 공장확장으로 인해 지난 3. 20(목)에 아래와 같이 이전하였습니다.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번지 안양 메가벨리 304호
- 전화 : 031-420-5791/2 / 전송 : 031-420-5793

변전소 원격감시진단 시스템 개발

(주)효성(대표:김재학) 중공업PG는 지능형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 (HiSAS : Hyosung Intelligent Substation Automation System)을 개발하여 경남 창원 소재 (주)효성 중공업연구소에 설치된 원격 감시·진단센터(RMDC : Remote Monitoring & Diagnosis Center)에서 본격적인 사업화에 들어갔다. 상기 시스템은 디지털 설비 기반의 변전기기로 구성된 다수의 변전소를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한 곳에서 집중 관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전력 및 포스코와 같은 대단위 수용가에서는 자체 독립적인 원격 감시·진단센터를 구축하여 운영이 가능하고 민수의 경우는 (주)효성의 원격 감시·진단센터에서 위탁받아 변전소 관리 대행이 가능하다.

HiSAS 시스템은 수/변전 설비(MTR, GIS, 배전반)에 대한 기기 상태 및 관련 Data 수집, 처리, 분석뿐만 아니라 기기의 상태 진단과 점검주기 제시 및 수명예측 등의 기능이 포함된 지능형 시스템으로서, 기존의 SCADA와 같이 간단히 전압/전류/전력 등을 감시하기 위한 CT/PT 이외에 수/변전 설비에 부착된 각종 진단항목에 해당되는 최적의 센서가 부착된다. 센서로부터 Data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진단 해석용 신호변환 Unit(DAU ; Diagnostic Analysis Unit)와 RTU(Remote Terminal Unit)를 이용하여 설비의 운전 및 기기 상태에 대한 Data를 효율적으로 취득한 후, 해당 변전소내의 HMI(Human Machine Interface) 화면에서 감시·진단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사내 Intranet과 Internet을 통해 (주)효성의 RMDC에서 실시간으로 감시·진단이 가능하며, 문제 발생 시 고객지원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다.